

섭외 1순위 황정음·류준열... 시청률도 1위?

순발 로맨스

뒤편 미신으로 해결하려는 여자

심보니 역 황정음

모든 일에 '합리'와 '이성' 찾는 남자

제수호 역 류준열

MBC 새 수목극 '순발' 테스트 시작

뒤편 미신으로 해결하려는 여자와 모든 일에 '합리'와 '이성'을 찾는 남자. 이 둘은 운명일까, 상극일까.

4차원 매력의 여성과 은근히 그를 생각하는 '츄데레'(겉으로 통명스럽지만 속은 따뜻한) 뜻의 신조어) 남성의 조합은 사실 새로운 게 없다.

그런 면에서 25일 첫 방송한 MBC TV 새 수목 미니시리즈 '순발로맨스'는 두 주연배우의 매력에 많은 부분을 기대고 있다.

전작을 통해 자신만의 캐릭터를 구축하며 '민보황'(민고 보는 황정음)이라는 별명까지 얻은 황정음(31세), 올해 초 tvN '응답하라 1988'을 통해 깜짝 스타로 떠오른 류준열(30)

이 그 주인공. 황정음은 미신을 맹신하는 프로그래머 심보니를, 류준열은 수학과 과학, 이성을 믿는 게임회사 CEO 제수호를 연기한다.

전작 '그녀는 예뻤다'에서 김혜진 역을 맡아 폭탄 맞은 것 같은 곱슬머리로 화제를 모았던 황정음은 첫 방송 당일인 25일 서울 마포구 상암 MBC에서 열린 제작발표회에 김혜진의 잔상을 지우겠다

는 듯 깔끔한 커트 스타일로 등장했다. 황정음은 "이해가 안 되면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는 성격이라 (인물 소개가 중점이 되는) 초반 촬영에서 조금 어려움을 겪었다"며 "한 나흘 전에 준열이와 대화를 나누면서 뭔가 타 풀렸다"고 상대 배우인 류준열에게 고마움을 표시했다.

2월 결혼 후 3개월 만에 복귀한 황정음은 "사실 '태양의 후예'를 보면서 멜로, 정통 멜로가 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결혼을 해서인지 멜로 작품이 들어오질 않았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황정음은 과거 '지붕 뚫고 하이킥'을 통해 아이돌 가수에서 연기자로 발돋움한 뒤 로맨틱 코미디 연기를 더 잘할 자신이 없다는 생각, 그리고 자신이 '거품'이라는 세간의 시선에 오기로 정극에 도전했다는 솔직한 이야기를 털어놓기도 했다.

"드라마 '비밀'을 하고 나서(는 세간의 평가에 대해) 마음에 조금 여유가 생겼고 작가님에 대한 믿음으로 '그녀는 예뻤다'를 선택했는데 결과가 좋았잖아요. 다시 정극을 하고 싶기도 했지만 제 앞에 놓인 선택지 중에 제목도, 내용도 신선한 '순발로맨스'를 골랐어요."

같은 소속사인 류준열이 자신에게 '황정음 선배님'이라고 존칭하자 "현장에서는 반말도 하고 막 가르치려고 한다"고 농담을 던지며 투닥거린 황정음은 "사실 1회에서 6회까지는 인물을 소개하고 이야기를 쌓아가는 과정이고 7회쯤 되면 연기를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다"며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런 뻘뻘한 이야기 아니고 볼 때마다 뒷이야기가 궁금해질 것"이라며 시청자에게 '본방 사수'를 당부했다.

지상파에서 첫 주연을 맡은 류준열은 "지상파, 케이블을 떠나 TV에 나온다는 것 자체가 좋아서 부담은 없는 것 같다"며 "전작('응답하라 1988')을 뛰어넘고, 새로운 걸 보여준다는 생각보다는 '순발로맨스' 자체에 집중해 제수호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전했다.

"류준열이 같은 소속사인지 몰랐다"는 황정음의 말에는 "저는 황정음 선배와 같은 소속사인 걸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고 너스레를 떠 뒤 "황정음 선배와의 현장은 한 단계씩 설정하려는 저 같은 배우에게는 굉장히 좋은 배움의 기회"라고 말하기도 했다.

'순발로맨스'는 동명의 웹툰을 원작으로 했지만, 원작의 길이가 짧은 탓에 새로운 인물과 스토리가 상당수 추가됐다.

김 PD는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는 것을 믿던 여자가 내 앞에 있는 사람을 믿고 의지하는 방법을 배워가는 드라마"라며 "두 배우는 모두 섭외 1순위였다. 두 배우와 함께할 수 있어 기분이 좋다"고 말하기도 했다.

보니와 오랜 인연이 있는 세계적 테니스 스타 최건욱 역에는 이수혁이, 푹 부러지는 알파걸 한설희 역에는 이정아가 캐스팅됐다. /연합뉴스



'또 오해영' 시청률 연일 고공행진

8.8%기록...케이블채널 월화드라마 중 최고 성적

tvN '또 오해영'이 케이블채널 월화드라마의 역사를 다시 썼다.

25일 tvN에 따르면 전날 방송된 '또 오해영' 8회의 시청률은 평균 8.3%(닐슨 코리아, 유료플랫폼가구 기준), 최고 8.8%를 기록했다.

7회 7%보다 1%포인트 넘게 오른 자체 최고 기록이자, 케이블채널 월화드라마 중 최고 성적이다. 이전 기록은 지난 2월 1일 '지프인터럽트' 9회 방송분의 7.2%였다.

24일 방송에서 오해영(서현진 분)은 옛 남자친구 한태진(이재운)과 마주친 뒤 방향했고 파혼의 진짜 이유를 부모님께 털어놓은 뒤 함께 마음을 달랬다.

자신의 오해로 오해영과 한태진을 갈라서게 했던 박도경(예리)은 오해영에게 더 다가서지 못하고 망설이는 모습으로 시청자를 안타깝게 했으나, 방송 말미 그가 오해영에게 키스하는 모습이 그려져 기대를 모았다.

8회 방송 내용 중 가장 높은 시청률 8.8%를 기록한 장면은 박도경이 한태진의 차를 들이받는 장면이었다.

또 이 드라마의 주타깃층인 2040시청층의 최고 시청률은 박도경이 오해영에게 키스하는 마지막 장면이었다고 tvN은 설명했다. /연합뉴스

신성록, 직장인 여성과 6월 극비 결혼

뮤지컬 무대와 안방극장을 오가며 활동하는 배우 신성록(34)이 다음 달 결혼한다.

신성록의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는 25일 "신성록이 6월 중순으로 결혼식 날짜를 잡았다"며 "예비 신부가 일반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 여성이어서 결혼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신성록 측은 구체적인 예식 날짜와 장소는 외부에 알리지 않고 가족 친지와 가까운 지인만 참석한 가운데 결혼식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신성록은 뮤지컬 배우 출신으로 드라마에 꾸준히 출연했으며 2013년 SBS TV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에서 인상 깊은 악역 연기로 두각을 나타냈다. 그는 다음 달 12일까지 공연되는 뮤지컬 '마타하리'에서 '리두 대령' 역으로 출연 중이다. /연합뉴스



TV 프로그램 26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 / SBS
6	00 KBS 뉴스광장	00 이욱정 PD의 자연 담은 한끼 10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1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좋은 사람)	30 KBC 모닝와이드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20 닥터365 30 아침연속극 (내 사위의 여자)
9	30 KBS 뉴스	00 TV소셜 (내 마음의 꽃비) 40 여유만만	30 MBC 생활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10 SBS 뉴스 25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1	00 KBS 명품역사관 <관개도태왕> 50 안녕 우리말	00 출발 드림팀 2(재)	00 창사 55주년 특별기획 (목종화)(재)	00 닥터 365 05 도쿄서트 화통
12	00 KBS 뉴스 12	00 일일드라마 (천상의 약속)(재)	00 MBC 정오뉴스 20 수목미니시리즈 (순발로맨스)(재)	40 SBS 12 뉴스 50 닥터365 55 남도의 보물 100선
1	00 KBS 네트워크 특선 여기는 세계최환경경디자인 박람회입니다	00 MBC 다큐프라임 (오래의 땅 UAE, 새로운 한류로 물들다)	30 MBC 다큐프라임 (오래의 땅 UAE, 새로운 한류로 물들다)	20 제86회 전국총학생연맹대회
2	00 가요무대	00 KBS 뉴스타임 10 생활의 발견(재)	20 텔레몬스터(재) 25 내 품에 라바와 친구들 스페셜 55 텔레몬스터(재)	50 TV블로그 꿈지락 55 닥터365
3	00 숨터 05 특집다큐 도동 직거래, 신 유통버림이 분다 55 든든생활체조	00 자동차부품상 위키 2 30 TV 유치원	00 MBC 뉴스 10 헬로기즈 사이월드(재) 55 파워배틀 외치기	00 3시, 뉴스브리핑
4	00 4시 뉴스집중	00 여유만만	25 MBC 일일특별기획 (워킹맘 육아대디)(재)	30 고향이 보인다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KBS광주 연중특별기획 남도스페셜	00 로보텍스 30 터닝메카드 W	00 MBC 이브닝뉴스	00 애슬론 풋볼 30 SBS 뉴스 퍼레이드 50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2TV 생생정보	10 생방송 빛남	05 날씨와 생활 10 닥터 365 15 고향전문목 남도에 살았어라
7	00 KBS 뉴스7 35 한국인의 밤상	50 일일 드라마 (천상의 약속)	15 일일연속극 (다시 시작해) 55 MBC 뉴스데스크	15 TV블로그 꿈지락 20 일일드라마 (마녀의 성)
8	25 일일연속극 (별난 가족)	30 글로벌 24 55 비타민	55 MBC 일일특별기획 (워킹맘 육아대디)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
9	00 KBS 뉴스9		30 리얼스토리 논	
10	00 KBS 스페셜 55 숨터	00 수목드라마 (마스터 - 국수의 신)	00 수목미니시리즈 (순발로맨스)	00 드라마 스페셜 (탄파라)
11	00 KBS 뉴스라인 특집다큐 (2016 금연보고서 하얀 연가속의 진실)	10 해피 투게더	10 5.18 36주년 보도특집 (그들의 광주 우리의 광주)	10 자기야-백년손님
12	30 네트워크 문화특선 울타리 뮤직	신5 스포츠 하이라이트	15 한민족의 소리 스페셜 30 MBC 뉴스 24 50 메이저리그 다이어리	30 나이트라인

EBS1	
05:00 EBSe 생활 영어 05:30 건강천 아침 05:40 세계전문목 아틀라스 (병하의 대저항 페로제도) 06:10 세계의 눈 (북미 대륙의 탄생 - 인간) 07:00 지파티터스(재) 07:30 꼬마버스 타요(재) 07:45 뽀롱뽀롱 뽀로로 08:00 똥똥똥 유치원 1~3 08:45 방귀대장 뽀롱이 09:00 굼디와 친구들 09:30 쓰담쓰담 동물원 프렌즈 09:40 달라졌어요	10:30 최고의 요리비결 (정미경의 초간편 단호박찜과 두름 새우 무침) 11:00 세계테마기행(재) 11:40 한국기행 12:00 EBS 정오 뉴스 12:10 통일의 길 12:40 역사채널 12:45 연중기획 - 미래를 여는 교육 13:40 오 마이 미래 2035 13:50 이말! 스페이스 정글 14:00 코코몽2 14:30 최강전사, 미니특공대(재) 15:00 모피와 친구들
15:10 세계사 시간여행 15:20 꼬마 철학자 유고 15:35 호기심나라 오기도 15:50 바오밥섬의 파오파오 16:00 굼디와 친구들(재) 16:30 방귀대장 뽀롱이(재) 16:45 똥똥똥 유치원 1~3(재) 17:30 꼬마버스 타요(재) 17:45 뽀롱뽀롱 뽀로로(재) 18:00 생방송 특특! 보리하니1~4 18:45 오 마이 미래 2035 (신극한직업- 데이터 과학자) 19:30 EBS 뉴스 19:50 건강 프로젝트 바꾸면 산다	20:40 다큐오늘 (17가지 맛의 민어) 20:50 세계테마기행 (미지의 땅, 내일 동남부 기행 4부 꿈꾸는 여인들) 21:30 한국기행 (내 마음의 울릉도 4부 우리가 울릉도에 머문 까닭은) 21:50 EBS 스페셜 프로젝트 22:45 다문화 고부열전 23:35 글로벌 가족정착기 -한국에 산다 24:05 역사채널 8(재) 24:10 EBS 스페셜 공감 1.2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5월 26일 (음 4월 20일 戊申)

子	48년생 합리성이 발전을 이끄는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60년생 해는 없으리라고 보니 일단 받아들이는 것이 낫겠다. 72년생 약간의 신경 쓴다면 머지않아서 호전되겠다. 84년생 운명을 좌우할 수도 있는 기로에 서게 되리라. 행운의 숫자 : 18, 53	午	42년생 소소한 것은 차치하고 주된 가치에 충실 하라. 54년생 책임의 한계를 분명히 해두는 것이 나을 것이다. 66년생 대응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종합적이어야만 한다. 78년생 한 가지 생각에 몰두하다가 다른 것을 놓칠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17, 88
丑	49년생 결실은 이미 약속돼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니 여유를 갖고 충분히 응대해도 된다. 61년생 지리멸렬함을 지나 성취의 장에 이른다. 73년생 자신감부터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85년생 모아서 논해 봐야만 결론에 이를 것이다. 행운의 숫자 : 75, 71	未	43년생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중용의 도를 지키는 것이 이상적이다. 55년생 느낌이 오면 머무르지 말고 행동해야 뒤따라 이 없다. 67년생 근면적으로 상호 결부되어 있음을 알자. 79년생 디딤돌이 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24, 23
寅	50년생 준수하지 않는다면 위험에 노출될 것이다. 62년생 사세가 급하다고 하여서 불필요한 것까지 수용할 이유는 없다. 74년생 제3의 요소가 개입되면서 복잡해지기만 한다. 86년생 새로운 이익이 생길 수도 있으니 잘 살펴봐라. 행운의 숫자 : 62, 55	申	44년생 끝없이 빠져들 수 있으니 분명한 한계를 두자. 56년생 유혹 앞에 오랫동안 노출되어 있을 것이니 후회하지 않게 행동해야 한다. 68년생 기다리는 것이 무난하다. 80년생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세 번이 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30, 39
卯	51년생 기발한 발상이 필요하다. 63년생 이미 지나가 버린 것은 뒤돌아 볼 필요 없으니 앞만 보고 진행하자. 75년생 뜻밖의 행운이 찾아온다. 87년생 우연히 같이 있다가 영결결에 다들어서 억울한 피해를 당할 수도 있는 날이다. 행운의 숫자 : 95, 76	酉	45년생 전도양양하니 대단히 희망적이다. 57년생 길사로 인해서 탄력이 붙겠다. 69년생 당장 마음에 끌린다고 하여서 실행하지 말고 뒷감당할 일까지 염두에 두고 임하라. 81년생 구상이 오늘에 이르러서야 현실화될 수 있겠다. 행운의 숫자 : 22, 29
辰	40년생 동침하는 것이 이롭다. 52년생 변화에 대처하는 새로운 감각이 요구된다. 64년생 행운의 여신이 문을 노크하리라. 76년생 소중할 정보를 접하게 될 수도 있다. 88년생 침착한 이해관계에 따라 복잡하게 얽히게 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85, 31	戌	46년생 우연을 가장한 방문자가 보이니 손님맞이에 민반의 준비를 해둬라. 58년생 마음먹기에 달려 있으니 용기를 갖고 임하라. 70년생 일처리지 않을 수도 있으나. 82년생 집중적이고 일관되게 추진되었을 때에만 가능하리라. 행운의 숫자 : 07, 87
巳	41년생 마음을 비우고 대세를 관망해야겠다. 53년생 방심한다 면 가장 소중한 것을 잃을 수도 있다. 65년생 깔끔하게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77년생 정성을 다 하라. 89년생 괜히 나섰다가는 이상한 일정이 될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51, 86	亥	47년생 원칙을 고수하는 것이 순탄함을 낳을 것이다. 59년생 속 마음을 털어놓고 상해 받으면 해결점을 도출할 수 있다. 71년생 새 대로를 걷는 것이 편하고 빠른 길이다. 83년생 지나친 집착은 대국을 망칠 수도 있으니라. 행운의 숫자 : 97, 38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원영" ☎010-9790-8237